

# 「군서표기(群書標記)」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

## An Evaluation of the Academic Levels of the Books Entered in *Gunseo-pyogi*

리 상 용(Sang-Yong Lee)\*

### 목 차

- |                                    |                             |
|------------------------------------|-----------------------------|
| 1. 서론                              | 2.3 서지적 가치                  |
| 2. 「군서표기(群書標記)」 수록 도서의<br>질적 수준 분석 | 3. 현대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 기준과의<br>비교 |
| 2.1 내재적 가치                         | 4. 결론                       |
| 2.2 사상적 가치                         |                             |

### 초 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의 관찬 해제목록인 「군서표기(群書標記)」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서적들의 질적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수준 평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목록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저자의 수준과 내용 면에서 현대의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상회하는 훌륭한 책들이라 할 수 있다.

### ABSTRACT

The writer investigated the academic values of the titles based upon book annotations included in *Gunseo-pyogi*, or An Annotated Catalog of books written and edited by the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d various types of evaluative methods adopted in *Gunseo-pyogi*, and then compare them to the modern general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The writer found the fact that the academic qualities of books listed in *Gunseo-pyogi* were even more excellent than the modern criteria for good books in the point of level of authors and contents.

키워드: 군서표기(群書標記),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장서평가기준, 도서선택, 도서선택기준, 장서관리론  
Gunseo-pyogi, Jongjo, Hongjae-jeonseo, Library Criteria of Book Selection, Book Selection, Collection Management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syly@ewha.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7일

## 1. 서론

「군서표기(群書標記)」는 1799년에 규장각 신들이 정조가 편찬한 서적과 정조의 재위기간 동안 왕명으로 편찬된 서적을 대상으로 만든 해제목록이다. 이 「군서표기」가 「해동문헌총록」, 「규장총목」, 「누판고」, 「홍씨독서록」 등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역대 해제목록과 다른 점은 「군서표기」에 수록된 책의 성격이 정조가 직접 편찬한 책과 정조의 재위시기에 편찬된 명찬서(命撰書)에 국한되었으며, 수록된 책이 모두 한국본이라는 점이다.

「군서표기」에 대한 서지학계의 연구로는 현영아(1974), 신승운(2000, 2001)의 것이 있고, 규장각의 도서편찬에 관한 연구로서 강순애(1990)의 것이 있다. 현영아는 「군서표기」의 편찬과 간본과 인쇄 과정에 대해 논하고,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을 시강(侍講) 및 경연(經筵), 송유(崇儒) 및 주자학(朱子學), 탕평(蕩平), 시문(詩文), 정서(正書) 등 6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록된 서적의 성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신승운은 「군서표기」를 완역하고, 「군서표기」의 편찬과 간행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강순애는 정조조에 규장각에서 편찬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 편찬 범위를 계지술사(繼志述事), 송유중도(崇儒重道), 학문진작(學問振作), 문체반정(文體反正), 본문교감(本文校勘) 등 5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다시 어제서(御製書), 어정서(御定書), 일반서적 등으로 구분하여 정조, 순종, 철종 등 각 왕조별로 규장각에서 발간한 서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현영아와 강순애는 그들의 연구에서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성격을 유형별로 구분

하여 살펴본 바 있으나, 필자는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을 대상으로 그의 질적 수준 평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목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질적수준평가는 특정 컬렉션에 대한 평가라는 측면에서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18세기 말에 편찬된 관찬서목인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 평가를 현대 문헌정보학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조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군서표기」에는 수록된 서적마다 해제가 붙어 있는데, 상당수의 해제에서 그 서적의 내용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만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평가 내용은 유형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대비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서표기」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거기에 수록된 도서의 해제 내용을 분석하여 유형별로 유취해 본 후에,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군서표기」 수록도서의 질적 수준 분석

「군서표기」에 수록된 각 도서의 해제에서는 그 서적의 내용이나 저자 등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군서표기」에는 155종 3991권의 서적이 수록되었는데, 이들 도서의 해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적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로 해석할 만한 내용을 담은 것은 대략 100여종(약 65%)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분류순 선정도서 해제목록인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에 수록된 서적의 선정기준(전체 472종 중 260종 55%)과 전국책판목록인 「누판고(鑊板考)」에 수록된 서적의 평가기준(전체 610종 중 240여종 약 40%)에 비하면 다소 높은 비율이다.

여기에서는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 수준을 1) 내재적 가치, 2) 사상적 가치, 3) 서지적 가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를 현대 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1 내재적 가치

서적의 내재적 가치란 도서 자체가 지니는 본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적의 내용적 수준이 다른 서적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1) 내용이 우수하거나 표준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2) 기존의 설을 정리하거나 종합한 경우, 3) 특정 서적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거나 요약·정리한 경우, 4) 수록 인물을 중시한 경우, 5)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지침서적인 성격을 띤 경우, 6) 과거시험문제 또는 우수시험답안을 수록한 경우 등이 있다. 이들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1.1 내용이 우수하거나 표준적인 성격을 지닌 경우

목록에 수록된 서적에 해제를 붙이면서 그 서적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목록편찬자의 주요한 업무이다. 「군서표기」의 해제에서는 책의 해제 또는 그 책에 대한 서문 또는 발문 등을 수록하여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군서표기」의 해제에서 서적의 내용적 가치가 높거나 우수하다고 평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고수권(陸稿手圈)」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唐) 나라 사람의 주의(奏議)로는 육선공(陸宣公) 한 사람만을 꼽을 수 있는데, 그의 주의는 상소문의 표준이 될 만하다. … 나는 그의 상소문을 아주 좋아하여 반복해서 읽고 간략하게 추려서 「육주약선(陸奏約選)」을 편찬하였고, 이어서 전체 원고에 비점(批點)과 권점(圈點)을 가하여 「육고수권(陸稿手圈)」을 만들었다(唐得一陸宣公 而可以爲法於公車 … 切愛其奏狀 反復輪閱 約而節之 爲陸奏約選 仍批圈於全稿 而爲手圈).<sup>1)</sup>

정조는 선공(宣公) 육지(陸贄)의 장소(章疏)가 상소문의 표준이 될만하다고 하여 그 내용적 우수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정조가 이처럼 육지의 주의문(奏議文)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육지의 주의문이 제왕의 관점에서 이해득실을 논하였으며, 당나라 시대의 주의문이 지닌 부화한 형식을 제거하고 의리를 담은 실질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육지의 주의문을

1) 「群書標記」, 御定3

본 논문의 번역문은 「군서표기」(신승운, 국역 홍제전서, 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2000)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약간 수정하였다.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강혜선 2000, 130-138).

또한 「팔가수권(八家手圈)」의 해제에서는 “당송 팔가(唐宋八家)는 문장의 연부(淵府)이다. 그들의 글에는 서경(西京) 문장의 즐겁고 화평함과 남조(南朝) 문장의 부드러움이 흐르고 있어서 문장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모두 신비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sup>2)</sup>라고 하여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문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18세기 전반에 들면서 기존에 문장의 모범으로 삼았던 한위성당시문(漢魏盛唐詩文)에 대한 기조가 흔들리고, 산문에서는 소품문(小品文), 시에서는 기괴한 시풍이 크게 유입되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명말청조 시문(詩文)의 유입으로 더욱 촉진되어서, 경술(經術)에 바탕을 둔 당송고문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대부가 문필활동을 하는데 모범적인 문체가 필요했던 것이다(안대회 2000, 90-98).

「시관(詩觀)」의 해제에서 “「시관」에 수록된 시는 모두 77,218수로 모두 560권이니 참으로 장관(壯觀)이다.”<sup>3)</sup>라고 하여 「시관」에 수록된 시의 우수성을 언급해 주고 있다. 이 「시관」 역시 당시 시문의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모범적인 시문선집을 보급함으로써 시풍이 순정해지기를 기대한 것이다(강혜선 2000, 80).

이밖에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 「칠정보법(七政步法)」<sup>4)</sup> 등이 있다.

2.1.2 기존의 설을 정리하거나 종합한 경우  
「군서표기」의 해제에서는 수록된 서적 가운데 기존의 여러 설을 정리하거나 종합한 서적에 대해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서적으로 「사칠속편(四七續編)」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세의 선비들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한권의 책으로 편찬하여 전대와 후대에 서로 대립하게 된 전말을 자세히 밝힌 것이 근래에 통행하는 「사칠변(四七辨)」이다. … 나는 사단칠정(四端七情), 인심도심(人心道心)의 분변(分辨)에 대해 평소부터 깊이 음미하고 고찰하여 거의 대부분의 설에 대해 두루 살펴보았다. 다만 그 주장들이 여러 책에 흩어져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사칠변(四七辨)」과 근세 선비들이 논한 내용을 찾아서 추가하고 조사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었다. 아마도 이 책을 통해서 사칠(四七)의 쟁점이 저절로 그 시비가 드러날 것이다(後儒集諸家之說 編爲一書 俾詳其前後 參商之本末 近世所行四七辨……予於四七人道之辨 玩索有素 考覽殆遍 而顧其說 散見諸書 不相統屬 乃以四七辨及近世諸儒所論者 逐加緝閱 輯爲一書……其於四七公案 自有涇渭之可觀矣).<sup>5)</sup>

2) 앞 책, 御定3

唐宋八子者 文章之淵府也 流西京之愷悌 蕩南朝之脂韋 鉅細洪纖 各臻其妙

3) 앞 책, 御定2

凡詩觀之錄詩 七萬七千二百十八首 而爲五百六十卷 誠壯觀也已

4) 앞 책, 御定6

5) 앞 책, 御定1

즉, 이 「사칠속편(四七續編)」이 사단칠정(四端七情)과 인심도심(人心道心)에 관한 기존의 주장을 정리하고 분변(分辨)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인물고(人物考)」의 해제에서는 “이의현(李宜顯)이 엮은 「인물고(人物考)」에서 인물의 선택이 너무 적고 체재에 문제가 있어서 유형원(柳馨遠)의 「여지지(輿地志), 김육(金堉)의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송성명(宋成明)의 「국조명신록(國朝名臣錄), 김시위(金始煒)의 「취언(彙言)」과 태상시(太常寺)에서 보관하고 있는 시장(謚狀) 등을 가져다 놓고 서로 참조하여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sup>6)</sup> 고 하여 기존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의 해제에서는 “「경제육전(經濟六典),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록(續錄), 「후속록(後續錄), 「수교집록(受教輯錄), 「속대전(續大典)」 등의 서적들이 법을 분류·배열한 항목이 너무 많아 관리들이 그 방대한 점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편찬 기구를 설치하고 이전의 법전을 모아 편집·정리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이라 이름하였다.”<sup>7)</sup> 고 하여 기존의 법령을 재정리 하여 종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시악화성(詩樂和聲)」,<sup>8)</sup> 「군려대성(軍旅大成)」,<sup>9)</sup> 「협길통의(協吉通義)」,<sup>10)</sup> 「장릉사보(莊陵史補)」,<sup>11)</sup> 「증정문헌비고(增訂文獻備考)」<sup>12)</sup> 등 다수의 책이 있다.

「군서표기」에서는 수록된 서적에 걸맞은 평가를 내려줌으로써 후학들이 효율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내용이 우수한 서적과 더불어 기존의 여러 설을 종합하거나 정리한 내용들을 함께 평가하면서, 후학들이 독서하는데 폭넓은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 2.1.3 특정 서적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거나 요약·정리한 경우

이 유형은 특정한 서적이 분량이 많은 경우 그 내용을 다 읽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정수만을 뽑아서 편찬한 서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먼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모범이 될만한 관각문(館閣文)을 선정하여 편찬한 「문원보불(文苑黼黻)」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앞 책, 御定4

故相李宜顯所編人物考 取舍失之太簡 體裁亦欠疎狃 予取柳馨遠之輿地志 金堉之海東名臣錄 宋成明之國朝名臣錄 金始煒之彙言 與凡太常所載謚狀之屬 互相參照 補苴脫漏

7) 앞 책, 御定5

曰經濟六典 曰經國大典 曰續錄後續錄 曰受教輯錄 曰續大典 卽我朝典章也 然其書薈居多門 有司憚其浩穢 乃開局會粹 命名曰大典通編

8) 앞 책, 御定1

9) 앞 책, 御定3

10) 앞 책, 御定6

11) 앞 책, 御定6

12) 앞 책, 御定6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집을 가져다가 좋은 문장을 여기저기에서 뽑았다. 그러나 그 책의 권질이 점점 늘어나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더욱 많아지게 되어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이 일을 주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시대 순으로 책을 교열하였으며, 주제별로 문장을 뽑아서 사실을 기록하고 표시해두었다. 그것을 병과 독을 두어 모은 것이 세월이 흘렀다. 「문원보불」이 바로 그 결과 가운데 하나였다(爰取東人文集 庸資漁獵 然其卷表漸博 遺忘漸至 不可無法以主之 於是 緝閱以時代爲序 記識以類鈔爲要 置瓶貯甕 積有所事 而文苑黼黻 卽其一也).<sup>13)</sup>

정조가 이처럼 관각문(館閣文)의 선집을 모아 놓은 「문원보불」을 편찬한 이유는 답습과 표절, 수식과 기교를 일삼는 문체가 일반문인들의 글쓰기 뿐 아니라 전교(傳敎)나 장주(章奏) 등 국가의 공식 문자행위인 관각문(館閣文)에까지 침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찬한 것이다(강혜선 2000, 26-27).

「팔자백선(八子百選)」의 해제에서는 “내가 한유의 글 30편, 유종원의 글 15편, 구양수의 글 15편, 소순의 글 5편 등 당송팔대가의 문장 100편을 선정했는데, 모두 다 소위 정수 중에 정수이다.”<sup>14)</sup>라고 평가하였다. 정조는 당송팔대가의 문장 가운데 정수를 추출하여 당시

쇠미(衰微)해진 문풍을 바로잡고 그들의 문장을 모범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오경백편(五經百篇)」의 해제에서도 “오경(五經) 중에서 평소 실마리를 찾아가며 암송하던 부분을 뽑아서, 책의 권질을 줄이고 글자의 모양을 크게 써서, 노년에 반복해서 암송하고 이를 일상적인 일과(日課)로 하는데 편리하게 한 것이다.”<sup>15)</sup>라고 하여 경전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만을 뽑아서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성학집략(聖學輯略)」,<sup>16)</sup> 「송사촬요(宋史撮要)」,<sup>17)</sup> 「전사전평(全史銓評)」,<sup>18)</sup> 등 많은 서적이 있다.

통상 학문을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주제이든 가장 훌륭한 서적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상 그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군서표기」에서는 중요한 서적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보다 간편하게 이들 책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2.1.4 수록 인물을 중시한 경우

서적의 질적 평가를 함에 있어 목록에 수록된 서적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책에서 다룬 인물에 대한 평가이다. 「군서표기」의 해제에서는 책에 수록된 인물에 대한 평가를

13) 앞 책, 御定2

14) 앞 책, 御定1

予選昌黎文三十篇 柳州文十五篇 六一文十五篇 老泉文五篇 東坡文二十篇 穎濱文五篇 臨川文七篇 南豐文三篇 滿百而止 皆所謂醇乎醇者也

15) 앞 책, 御定3

就五經中 常所紬繹而諷誦者 簡其篇帙 大其字樣 爲便晚來輪誦 仍作常課

16) 앞 책, 御定1

17) 앞 책, 御定1

18) 앞 책, 御定1

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각 주제 분야의 유명한 인물이거나 문장이 뛰어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그 인물의 문장이나 저술 내용보다도 그 인물의 품성과 위업 또는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경우도 있다. 이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후대에 길이 남을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책으로 「해동신감(海東臣鑑)」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로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에서 시작하여 본조(本朝) 윤계(尹槩)에 이르기까지 모두 191명을 실었다. 수록된 사람마다 이름 다음에 자(字)와 본관과 작위와 시호를 쓰고, 후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언행(言行)과 사적(事蹟)을 요약해서 기록하였다. … 우리나라 역대 왕조와 국조(國朝) 명신(名臣) 191명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잠곡(潛谷)이 편찬한 책의 의례(義例)를 본받아 뛰어난 사람만을 선정하였다. 대개 본받을 만한 선행을 한 사람들을 칭송하면, 어진 이를 본받고자 하는 이들이 기준을 삼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起自弘儒侯薛聰止本朝尹槩 凡一百九十一人 每人名下 註其字里爵諡 撮錄其言行事蹟之可爲後人鑑法者 … 東國歷代及國朝名臣 凡錄一百九十有一人 取雋於潛谷所編義例 蓋揚其善之可爲法者 不患不裨補於思齊之柯則也).<sup>19)</sup>

설총부터 윤계에 이르기까지 역대 주요 명신

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을 수록함으로써 후대에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최고의 문장가들에 대해 평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륙천선(杜陸千選)」의 해제에서는 “주자의 말을 빌어서 광명정대(光明正大)하고 막힘없이 탁 트여 분명하며, 뜻이 크고 결백하며 지조와 절개가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당(唐)나라에서 오직 두보(杜甫) 선생을 들 수 있으며, 육유(陸游)에 대해서는 주자와 같은 시대를 산 사람인데도 주자가 오히려 그의 시가 평화롭고, 순결하고 깨끗하며 중국 대륙의 태평한 기상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니, 지금 세상에 옛 시대와 비교하여 그 백성을 가르치고 풍속을 교화하는 데 두보(杜甫)와 육유(陸游)의 시를 놔둔다면 무엇을 쓰겠는가”<sup>20)</sup>라고 하여 대 시인으로서 두보와 육유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정조는 시의 내용과 형식을 완전하게 갖춘 두보와 육유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서 명칭의 문예사조에 영향을 받아 초쇄섬미(皦殺纖微)해진 당대의 시풍을 교정하려고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선 후기 시단에 유육입두(由陸入杜) 즉, 육유(陸游)를 통해서 두보(杜甫)에 입문하는 학습절차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강혜선 2000, 21-22).

또한 「증정음취헌집(增訂挹翠軒集)」에서 “세상에서 박은(朴闇)을 동방의 시성(詩

19) 앞 책, 御定1

20) 앞 책, 御定4

夫子又嘗曰 光明正大 疏暢洞達 磊磊落落 無纖芥之可疑者 於唐得工部杜先生 … 如陸務觀 與夫子同時 而夫子尚許之以和平粹美 有中原昇平氣象 則當今之時 等古之世 教其民而化其俗 捨杜陸奚以哉

聖)으로 추대하고 황태사(黃太史)에 견줄 만하다고까지 하는데 진실로 과장된 말이 아니다. ... 박은이 시를 잘하여 「시경(詩經)」 국풍(國風)의 운치를 지녀 우리나라에서 끊어진 시학의 창도(倡導)가 되었다.”<sup>21)</sup>고 하여 박은의 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정조는 박은이 조선시대의 시인 가운데 시의 근본에 가장 가까운 시인이라 판단하여 그의 시를 절대적으로 애호하였는데, 여기에는 당시에 문체반정(文體反正)이라는 정책적인 요구가 결합한 것(최현태 1998, 30-38)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이가전율(二家全律)」,<sup>22)</sup> 「율영(律英)」,<sup>23)</sup> 등이 있다.

### 2.1.5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지침서적(指針書的) 성격을 띤 경우

「군서표기」에는 실용성을 강조하거나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적인 성격을 띤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정조의 실용적인 학문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경전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심성(心性)을 논하는 성리학의 폐단을 배격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주장하였다(정옥자 2001, 24-37). 이 같은 그의 학문관은 그의 저술과 명찬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먼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중신편(濟衆新編)」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조(本朝)의 의학서적으로는 허준(許浚)

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이 가장 상세하다. 그러나 내용이 번다하고 뜻이 중복되며 누락된 내용도 많았다. 내가 이미 추가하고 바로잡아 범례를 만들어 「수민묘전(壽民妙詮)」 9권을 편찬하고 다시 내의원(內醫院)에 명령하여 여러 비방(秘方)을 두루 채집하여 빈잡한 것은 삭제하고 요점을 취하고 그 중간에 경험방(經驗方)을 첨부하여 별도로 통행시킬 수 있는 책 1부를 만들었다. ...시골벽지의 백성들도 이 책을 한번 보기만 하면 원히 알 수 있어서 서명을 「제중신편(濟衆新編)」이라 하였다(本朝醫書 惟許浚寶鑑 最稱詳核 然文繁意疊 疏漏亦多 予既就加槩括 發凡起例 撰成壽民妙詮九卷 復命內醫院 博采諸方 芟繁取要 間附經驗之方 另編一部 可行之書……使遐鄉窮鄙之民 一開卷瞭然 名曰濟衆新編).<sup>24)</sup>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의학서적을 일반 백성들도 알기 쉽게 알 수 있게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제중신편(濟衆新編)」은 「동의보감」 이후에 발전된 의학을 도입한 동시에 당시 민간 의약업자에게 가장 실용적인 처방전 모음집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 책이 나온 후에 「동의보감」의 실용화가 진전되었으며, 그 후 실용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가속화 되었다(임미선 외 2000, 289-290).

또한 「삼군총고(三軍摠攷)」의 해제에서도 “가까이는 숙위(宿衛)하는 군사와 창을 들고 호위하는 군대에서 멀리는 성곽을 지키고 봉화

21) 앞 책, 命撰2

世推朴聞爲東方詩聖 至謂可與黃太史鴈行 誠非過謬也……挹翠善於詩 有國風之遺響 爲東方絕學之倡

22) 앞 책, 御定3

23) 앞 책, 御定4

24) 앞 책, 命撰2



(烽火)를 살피는 군졸에 이르기까지 기병(騎兵)·보병(步兵)과 군보(軍保)·향보(餉保)까지 그들을 군영(軍營)에 배속시키고 도(道)별로 나누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책을 펴 보면 손바닥을 보듯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25)</sup>고 하여 군대의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찬한 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과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에서도 “왕여(王與)가 지은 「무원록(無冤錄)」이 이두(吏讀)를 많이 사용하여 해독하기가 어려우므로 한글로 번역하여 책을 펼치기만 하면 환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후로 중외의 옥사를 다스리는 신하들은 법조문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sup>26)</sup>고 하여 관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책을 만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증수무원록」은 중국 원대에 편찬한 「무원록」에 주석(註釋)과 음훈(音訓)을 붙여서 조선 세종 때 간행한 「신주무원록(新註無冤錄)」이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고, 그 문장이 원(元)의 행회이문(行會吏文)으로 되어 있어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의 검험제도(檢驗制度)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다(정재영 1999, 30).

또한 「흠휼전칙(欽恤典則)」의 해제에서는

기존의 법이 오래되어서 폐단도 많이 생기고, 아전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같은 폐단을 없애고 죄질에 따라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흠휼전칙」을 엮고, 다시 도(圖)와 척도(尺度)를 그려 넣어 이 책을 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sup>27)</sup>이라고 하여 죄질에 따라 공평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정조의 실용적인 학문관은 그의 저술과 명찬서에도 반영이 되어서 의학, 군사, 법률 등 당시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지닌 기존의 서적을 알기 쉽게 풀어서 책을 편찬함으로써 이들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준 것이다.

#### 2.1.6 과거시험문제 또는 우수시험답안을 수록한 경우

「군서표기」에서는 「홍씨독서록」이나 「누판고」 등 다른 서목에서 볼 수 없는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 바로 과거시험 문제와 우수한 과거시험답안을 엮은 서적을 수록한 점이다. 이들 서적들은 과거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우수한 시험답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시험문제집에 대한 것으로서 「임

25) 앞 책, 御定3

近而宿衛陞樞之兵 遠而登陴候烽之卒 若騎若步 若軍保若餉保 營以彙之 道以分之 一一計開 開卷便瞭然如指掌

26) 앞 책, 命撰2

王與所撰無冤錄一書 然其書多用吏讀 艱於曉解……飭諺爲解 俾可一開卷瞭如 付外閣活印頒行 自此中外按獄之臣 庶不至於臨文錯解云

27) 앞 책, 御定1

惟是法久弊生 吏緣爲姦 近年以來 大小輕重 或多有不如式者 予以臨御之初 頒諭中外 釐正刑具 仍著于篇 圖式在前 條令在後

헌제총(臨軒題叢)」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즉위한 이후 모든 명절이나 식년시(式年試) 등 정식(程式)이 정해진 것 외에, 초계문신의 월시(月試)와 반유(泮儒)의 순제(旬製), 대궐에 숙직하는 신하들에게 때때로 실시하는 응제(應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였다. ... 많게는 수백에서 천 개에 이르는 제목을 냈지만 문장도 의미도 앞서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니 제목을 한 번 낼 때마다 몇 번씩 생각하여 반드시 응제자(應製者)의 의장(意匠)과 포서(鋪敘)가 머리에 떠오른 뒤에야 비로소 반포하였다(予自臨御以後凡節日大比等科著在令式者以外 又有抄啓之月試 泮儒之旬製 禁直諸臣之以時應製 無不親自命題……多者或至累百千題 而文不相沿 意不相襲 每一命題 屢回審釋 必思應製者之意匠鋪敘 然後始頒之).<sup>28)</sup>

즉, 과거시험문제 출제가 어렵고 많은 생각을 해야 하므로 기존 과거시험문제를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편찬함으로써 과거시험 준비를 하는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과거시험 결과 우수 답안을 모은 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풍패빈흥록(豊沛賓興錄)」과 「정시문정(正始

文程)」을 들 수 있는데, 그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풍패빈흥록(豊沛賓興錄)」

내각에 명하여 유무시(儒武試)의 방안(榜眼)과 최우수작의 시권을 가져다 순서대로 편집하고, 첫머리에 제향(祭享)한 사실과 경축하는 연구시(聯句詩)를 실어 임인자(任寅字)로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였다(命內閣 取儒武榜眼及試券魁作而叙次之 首揭躋享事實 志慶聯詩 以壬寅字印頒).<sup>29)</sup>

「정시문정(正始文程)」

내각에 명령하여 우등을 한 시권(試券)을 임인자(任寅字)로 인쇄하여 반포하도록 하고 첫머리에 문체에 대하여 언급한 교령(教令)과 비지(批旨) 등을 실게하여 「정시문정(正始文程)」이라 명명하였다(仍命內閣 以壬寅字印頒優等諸券 而首揭教令批旨之及於文體者 名之曰正始文程).<sup>30)</sup>

이처럼 과거시험답안 가운데 우수한 것들을 모아서 책을 엮음으로서 과거시험 준비를 하는 선비들에게 당시 시험답안의 표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책으로는 「경림문희록(瓊林聞喜錄)」,<sup>31)</sup> 「교남빈흥록(嶠南賓興錄)」,<sup>32)</sup> 「관동빈흥록(關東賓興錄)」,<sup>33)</sup> 「탐라

28) 앞 책, 御定4

29) 앞 책, 命撰2

30) 앞 책, 命撰2

31) 앞 책, 命撰2

32) 앞 책, 命撰2

33) 앞 책, 命撰2

빈흥록(毗羅賓興錄)」,<sup>34)</sup> 「관북빈흥록(關北賓興錄)」<sup>35)</sup> 등이 있다.

## 2.2 사상적 가치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적 가치란 유가적 사상(思想) 또는 도학(道學)과 연계된 서적을 의미한다. 당시 양반지배계층의 독서의 목적이 입신양명(立身揚名)과 도학실현(道學實現)에 있었으므로, 이 사상적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은 유가 질서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의미한다. 이 사상적 가치는 1) 유교경전과 관련된 경우, 2)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에 관한 저작인 경우, 3) 유가(儒家)의 정치사상을 담은 경우, 4) 국가에 대한 충의(忠義) 사상을 담은 경우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유교경전과 관련된 경우

「군서표기」에서는 조선 후기 지배 이념인 유교의 질서 속에서 유가의 경전에 대한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 조선시대의 지배 이념이 유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들 저작은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

를 둘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 및 경전에 대해 강론한 내용을 담은 서적들이 수록되었다. 먼저 「경서정문(經書正文)」의 해제에서는 “석경(石經)의 고문(古文)처럼 경서의 정문(正文)만을 간포(刊布)해서 정강성(鄭康成) 이전의 체재로 된다면 선생과 학생들이 경문의 의미를 깊이 연구하는 데 일조할 것”<sup>36)</sup>이라고 그 편찬 취지를 밝히고 있다. 당시에 경서에 붙은 주석의 내용을 분석하느라 경서의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조는 일체의 주석을 없애고 경서의 원문만 뽑은 문헌을 보급하여 주석을 익히는 데 소모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주석의 얽매이지 않고 경서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김문식 2000.9, 68).

이밖에 「논어강의(論語講義)」,<sup>37)</sup> 「맹자강의(孟子講義)」,<sup>38)</sup> 「중용강의(中庸講義)」,<sup>39)</sup> 「대학강의(大學講義)」,<sup>40)</sup> 「시경강의(詩經講義)」,<sup>41)</sup> 「상서강의(尙書講義)」,<sup>42)</sup> 「주역강의(周易講義)」,<sup>43)</sup> 「좌전강의(左傳講義)」,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sup>44)</sup> 등 정조의 재위기간 동안 편찬된 유교경전에 대한 강설집을 수

34) 앞 책, 命撰2

35) 앞 책, 命撰2

36) 앞 책, 御定1

如石經古文 而得康成以前體裁 則亦可爲經生學士深思力究之一助

37) 앞 책, 御定2

38) 앞 책, 御定2

39) 앞 책, 御定3

40) 앞 책, 御定2

41) 앞 책, 御定2

42) 앞 책, 御定2

43) 앞 책, 御定2

44) 앞 책, 命撰2

록하고 있다.

이처럼 정조가 강설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논어강의(論語講義)」, 「주역강의(周易講義)」의 해제에 잘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어강의(論語講義)」

문신들에게 명하여 숙독(熟讀)하여 암송하는 것을 우선하게 하였다. … 반드시 마음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징험(徵驗)하여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다만 강설(講說)의 밑천으로 삼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命諸文臣 先須熟習成誦…必求其體之於心 驗之於身 施之於日用注措 毋徒爲講說之資云).<sup>45)</sup>

「주역강의(周易講義)」

젊은 문관(文官)들은 과거(科擧)에만 급제하면 곧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여 책 한 자도 읽지 않고 글 한 줄도 짓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고질이 되어 바로잡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경(專經)의 규례와 월과(月課)의 정식이 있기는 하지만 무수히 시행하였다 말았다를 반복하여 이름과 실체가 맞지 않고 있다(年少文官 纔決科第 便謂能事已畢 不曾看一字做一文 又從以東閣書籍 不識爲何物 習俗轉痼 矯革未易 雖有專經之規 月課之式 作輟無常 名實不符).<sup>46)</sup>

즉, 경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적 연구를 통해

서 경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전의 내용을 암송하여 그 내용이 몸에 완전히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암송에만 그치지 않고 실천을 중시하였다는 점인데, 이 같은 강설을 통하여 관료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유교적인 도학 실현에 더욱 다가가기 위함일 것이다.

### 2.2.2 공자를 추존한 대학자에 관한 저작인 경우

「군서표기」에서는 주자(朱子), 정자(程子), 송시열(宋時烈) 등 중국과 한국에서 유교의 시조인 공자(孔子)를 추존하고 그의 학문을 집대성한 대학자들에 관한 서적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공자의 학문을 추존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인물들인 주자(周子), 백정자(伯程子), 숙정자(叔程子), 장자(張子), 주자(朱子) 등의 저술을 모아서 편찬한 「오자수권(五子手卷)」<sup>47)</sup>이 있다. 정조는 유학의 도통(道統)을 요순우(堯舜禹) → 공자(孔子) → 맹자(孟子) → 주자(周子) · 정자(程子) · 장자(張子) → 주자(朱子)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주자서 정리는 주자 이후의 도통(道統)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김문식 1998, 16).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정조는 주자를 지극히 존숭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은 「군서표기」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朱子)의 학설이 나오자 여러 학설들이

45) 앞 책, 御定2

46) 앞 책, 御定2

47) 앞 책, 御定3

잠잠해졌다. 그리하여 천리를 밝히고 인심을 바로잡아 해와 별처럼 하늘에 걸려 있고 높은 산처럼 우뚝 서 있으며, 후세에 모범을 보이고 천하만세토록 장도(章圖)와 법정(法程)이 되게 하였으니, 예전의 성인이나 후세의 성인이나 그 법은 같은 것이다(朱子出而衆說伏 明天理正人心 揭之爲日星 載之爲華嶽 垂而範之 爲天下萬世之章圖法程 前聖後聖 其揆一也).<sup>48)</sup>

공자가 산정(刪定)한 시경(詩經)에 주자가 서(序)를 씀으로써 공자의 도가 빛난 것처럼, 내가 주자가 지은 시를 선집(選集)하여 주자의 학문이 더 존중된다면, 남의 의리를 훔쳤다는 비난도 나는 사양하지 않겠다(朱子序孔子之刪詩 而孔子之道章焉 予選朱子之著詩 而朱子之學尊焉 則義竊有取 予不敢辭).<sup>49)</sup>

정조가 이처럼 주자를 존경하는 이유는, 요순우탕으로 이어지는 옛 성왕들의 도가 공자를 거쳐서 주자로 계승되었으므로, 주자의 존경과 숭배는 곧 공자에 대한 존숭인 동시에 유학을 지키고 정확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김문식 2000, 9, 79).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자와 주자를 추존한 인물로서 송시열(宋時烈)을 꼽고 있다. 그는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송 선정(宋先正, 즉 송시열(宋時烈))은 바로 송(宋) 나라의 주자(朱子)와 같다.

크게는 지켰던 것과 출처(出處), 작게는 언행과 동정(動靜)에 이르기까지 두 분의 문집에 보이는 글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서로 합치되지 않는 것이 없다. …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에 두 분의 글 중에서 서로 조응(照應)되는 것 약간 편을 뽑아서 한 책으로 엮어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이라 명명하였다. … 도학(道學)이 망해도 구하는 이가 없고 이단(異端)이 성행해도 이를 물리치는 이들이 없다. 선생이 지킨 것은 주자(朱子)의 대의(大義)였고 선생이 말한 것은 주자의 대도(大道)였다. 이는 주 부자가 죽은 뒤에 주자가 다시 나온 것으로, 물에 비친 저 달의 환한 빛도 바로 하늘에 떠 있는 저 달빛과 같은 것이다(我東之宋先正 卽宋之朱夫子也 大而秉執出處 小而言行動靜 以見於兩集者 比類參看 其有不合者幾希…予在春邸 鈔其兩相照應者若干篇 合成一書 名曰兩賢傳心錄……道學亡而莫之救 異端興而莫之闢……所秉者朱夫子之大義也 所講者朱夫子之大道也 朱夫子去而朱夫人生也 炯然水月 直是一般光輝也).<sup>50)</sup>

위의 예문에서 정조는 송시열을 '조선의 주자'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조는 송시열을 공자와 주자의 정통을 이은 인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정조의 주자에 대한 존숭은 저술과 해제목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군서표기」에는 「주자절요(朱子節要)」 가운데 핵심내용을 추출하여 편찬한 「자양자회영(紫陽子會英)」,<sup>51)</sup> 「주자

48) 앞 책, 御定3, 「五子手圈」

49) 앞 책, 御定4 「雅誦」

50) 앞 책, 御定1

대전」과 「주자어류」에서 몸소 뽑아 적어서 항목을 나누어 편찬한 「주자선통(朱子選統)」<sup>52)</sup>과 이밖에 「자치통감강목강의(資治通鑑綱目講義)」<sup>53)</sup> 「주서백선(朱書百選)」<sup>54)</sup> 「주자서절약(朱子書節約)」<sup>55)</sup> 「아송(雅誦)」<sup>56)</sup> 등 많은 주자 관련 선집을 수록하였다. 이처럼 정조가 주자서(朱子書)의 선본을 편찬한 이유는 주자학의 진면목을 학자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주자의 저술을 모아서 집대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김문식 1998, 17-18).

### 2.2.3 국가에 대한 충의(忠義) 사상을 담은 경우

「군서표기」에서는 임진왜란(壬辰倭亂)과 같은 국가의 대 변란을 당해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 몸 바친 충신, 열사의 기록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적을 수록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서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에 충성한 공을 높이 숭상하고 보답하며 무공(武功)을 세운 이를 드러내어 표창하는 것은 옛 선왕들이 세상을 격려하고 다스리는 도구이며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쓰는 일이다(尙忠救功 旌武彰烈 昔先王所以勵世磨礪之

具 而予之夙宵孳孳者也).<sup>57)</sup>

이처럼 「이충무공전서」에서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싸운 충무공의 공을 높이 표창하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때 포의(布衣)의 신분으로 의병을 일으킨 충용장군(忠勇將軍) 김덕령(金德齡)의 시문(詩文)과 사적(事蹟)을 함께 엮은 「김충장유사(金忠壯遺事)」에서는 “당시의 뛰어난 용기와 지략(智略)으로 여러 군사 중에 으뜸이었는데, 전공(戰功)을 세우기도 전에 모함을 받아 죽었다.”고 하고 이어서 “그의 형 덕홍(德弘)은 그보다 먼저 금산(錦山) 전투에서 순절(殉節)하였고, 아내 이씨(李氏)도 적을 만났을 때 적에게 욕을 하며 굽히지 않고 죽었으니, 남쪽 사람들이 말하는 한 집안에 세 명의 충렬(忠烈)이 났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sup>58)</sup>라고 하여 임진왜란 때 충절을 위해 죽은 인물들을 표창하고 있다.

또한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임충민공실기(林忠愍公實紀)」의 해제에서는 “장군의 충의(忠義)와 명절(名節)은 여인네나 아이들까지도 다 말할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진실로 크게 선양(宣揚)할 필요가 없지만 전기(傳記)를 다룬 책이 없으면 어떻게 후세에 전해서 훗날에 장군의 사적을 징험해 볼 수 있겠는가.”<sup>59)</sup>라고 하여 후대의 사람들에게 충의(忠義)와

51) 앞 책, 御定1

52) 앞 책, 御定1

53) 앞 책, 御定2

54) 앞 책, 御定2

55) 앞 책, 御定4

56) 앞 책, 御定4

59) 앞 책, 命撰2

58) 앞 책, 命撰1

雄勇威略 爲一時諸軍之冠 功未就而中蜚語以死 其兄德弘 先殉錦山之役 妻李氏 亦遇賊罵死 南人所謂一門三忠烈者也

명절(名節)을 알리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서적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양대박 장군의 문집인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紀)」<sup>60)</sup> 등이 있다.

이들 서적은 변란(變亂)의 내용을 잘 알아서 후세에 교훈을 삼고, 향후 이 같은 변란에 대비해야 하며, 또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닥쳤을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 선열들의 충절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당시 사대부들과 후대의 선비들에게 귀감을 보이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다.

### 2.3 서지적 가치

서지적 가치란 서적이 지니는 내용적 측면보다는 도서관 또는 도서목록 등 문헌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기존에 필자가 질적 평가분석에 대상으로 삼은 「홍씨독서록」과 「누판고」에서는 다루지 않은 항목이다. 「홍씨독서록」은 청소년을 위한 분류순 선정해제목록이며, 「누판고」는 전국 책판을 대상으로 한 분류순 책판목록인데 비해, 「군서표기」는 정조시대에 편찬된 서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기에 정조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문헌과 그 문헌을 소장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3.1 도서관 및 목록에 관한 경우

「군서표기」에는 당시의 왕실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홍문관과 규장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헌과 「규장총목(奎章總目)」과 「누판고(鑊板考)」 등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책을 탐독하고, 책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던 정조의 입장에서 도서관과 도서목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먼저 홍문관과 규장각에 관한 문헌인 「홍문관지(弘文館志)」와 「규장각지(奎章閣志)」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시대의 왕실도서관 가운데 하나인 홍문관의 연혁, 업무, 고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문관지(弘文館志)」의 해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관청을 설치하면 반드시 지(志)를 편찬하는 것은, 후세에 사실을 증명해 줄 문헌(文獻)으로 삼기 위해서인데, 홍문관은 문헌을 맡아보는 기관인데도 아직까지 지(志)가 없으니 이래서야 되겠는가(有官必有志 將以徵其文獻也 弘文館爲文獻主而尙闕焉 其可乎).<sup>61)</sup>

이처럼 정조는 홍문관(弘文館)과 같이 문헌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지(志)가 없는 것을 한탄하며 그 지(志)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규장각지(奎章閣志)」 역시 같은 이유에서 편찬된 책이다.

한편 당시 정조조 때 편찬된 목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규장총목(奎章總目)」과 「누판고

59) 앞 책, 命撰1

將軍之忠義名節 爲孺儒之所共道 誠無待乎鋪揚 而苟無一部傳記之書 何以詔來世而徵久遠

60) 앞 책, 命撰1

61) 앞 책, 命撰1

(鑊板考)」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규장총목」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 것을 연구하고 세상사를 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서적의 관리를 통해 그 시대 정치의 수준을 예측하곤 하였으니, 세상에서 서적을 중시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다. 내가 즉위한 첫해인 병신년(1776)에 내원(內苑)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모훈(謨訓)과 도적(圖籍)을 보관하게 하였다. 얼마 후에는 이전에는 없던 책으로 현재에 구할 수 있는 구류(九流)·백가(百家)의 서적 수천백 종을 사들이고 곧 각신(閣臣) 서호수(徐浩修)에게 지시하여 이 서적들의 목록을 편찬하게 하였다(考古論世之士 每以是占其治之汗隆焉 書籍之重於天下也 尙矣 予於丙申初載 肇建奎章閣於內苑 以奉謨訓峙圖籍 既又購求九流百家之昔無今有者幾數千百種 遂命閣臣徐浩修 著之爲目)<sup>62)</sup>

즉, 정조는 한 시대의 정치 수준에 대한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적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가에서 그 시대의 정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입장 때문에 정조는 조선시대의 어느 왕보다도 서적의 관리에 힘을 썼었던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바로 「누판고」의 편찬에서도 잘 나타난다. 「누판고(鑊板考)」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술년(1778, 정조2) 각 도에 하유(下諭)하여 공적 사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판(冊板)을

모두 기록하여 올리도록 하여 규장각에서 그 보존 상태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성조(聖祖)께서 뜻하신 일과 어진 재상의 계책이 비로소 질서 정연하게 모두 갖추어져 찬란하게 구비되었다. 병진년(1796, 정조20)에 다시 각신 서유구(徐有渠)에게 명하여 중외(中外)의 「장판부(藏板簿)」를 가져다 주제별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되 매 책마다 반드시 편찬자의 성명과 의례(義例)의 대략적인 내용을 표시하고 권질(卷帙)의 수효와 판본의 소재를 빠짐없이 자세히 기재하도록 하였다.(戊戌 下諭諸道 公私所藏刊書板本 並令計開錄上 自本閣考察其存佚 蓋至是而聖祖之志事 賢輔之訃謨 始綱舉目張 燦然大備矣 歲丙辰 復命閣臣徐有渠 取中外藏板簿 分門類次 彙成目錄 每一書 必標其撰人姓名 義例大致 而卷帙之多寡 板本之所在 無不備著而該載)<sup>63)</sup>

정조는 전국의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판(冊版)의 내력을 조사하고 이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누판고」의 편찬을 명했던 것이다.

이 유형은 전술한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문헌정보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치가 큰 것이다. 당시에 왕실도서관인 홍문관과 규장각의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수록한 서적을 편찬하게 하고, 또 이들 서적의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목록을 편찬한 점은 당시 정조의 문헌정보학적인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들 내용은 서적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존의 문헌들을 잘 정리하여 당시의 선비들에게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

62) 앞 책, 命撰1

63) 앞 책, 命撰2



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3.2 도서의 내용을 교감한 경우

「군서표기」에는 본문의 잘못된 내용을 교감하여 정본을 만든 도서들이 수록되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정자치통감강목속편(新訂資治通鑑綱目續編)」의 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목속편(綱目續編)」은 바로 명(明) 나라 성화(成化) 연간에 사국(史局)을 열어 편찬한 책인데, 이것을 내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에 힘들여 교감(校勘)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체제를 정리하였다(綱目續編 卽皇明成化間 開局纂修者 其刊訂訛謬 整理體裁 卽余在春邸時 積費勘校之工者也).<sup>64)</sup>

정조가 춘저(春邸) 즉 동궁에 있을 때 「강목속편(綱目續編)」의 내용을 교감하고 오류를 바로잡고 정리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명기제설(明紀提挈)」의 해제에서는 “전기(傳記)가 번잡하기로는 「명사(明史)」가 가장 심하고, 진위(眞僞)가 혼재하는 것도 「명사」가 가장 심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절충해서 「강목신편」을 편찬하였고, 다시 한 가지 대의(大義)라도 더 갖출 수 있는 서법(書法)과 따로 근거가 될 만한 사실들을 모아서 별도로 한 질의 편년사를 엮었으니 이것이 「명기제설(明紀提挈)」을 편찬하게 된 연유이다.”<sup>65)</sup>라고 하

여 「명사」에 담긴 내용의 오류 또는 진위를 바로잡아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조시악(國朝時樂)」<sup>66)</sup> 등이 있다.

### 3.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의 비교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 수준평가에 대한 내용을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목록에 수록된 도서에 대한 질적 평가나 특정 기관에 소장된 장서에 대한 질적 평가는 '특정한 컬렉션에 대한 평가'라는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장서평가란 도서관에 소장된 서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목록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질적인 평가와 의미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큰 범주에서 보면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장서 개발론의 대학자인 카터(Carter), 캐츠(Katz), 가드너(Gardner) 등이 있다. 이들이 주장한 장서평가이론의 핵심 사항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학자들의 장서평가기준을 종합한 후에 그 기준을 「군서표기」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평가와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영희(2005, 125-127)는 「디지털 시대의

64) 앞 책, 御定1

65) 앞 책, 御定1

傳記之繁亂 莫如明史 眞僞之錯互 亦莫如明史……如予既爲之親加折衷 編成綱目新編 復采其書法之可備一義者 事實之別有依據者 另作一部編年之史 此提挈之所由作也

66) 앞 책, 御定1

장서관리」에서 카터(Carter), 캐츠(Katz), 가드너(Gardner), 스피러(Spiller) 등 장서개발 분야의 주요 학자들이 그들의 저서에서 도서관 자료를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해 다양하게 기술한 내용 가운데 공통 요소를 추려서 1) 저작사항에 관한 것으로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에 관한 것, 2) 내용에 관한 것으로 주제, 주제의 범위, 주제를 다루는 방식, 표현, 문체 등에 관한 것, 3) 물리적인 특성으로 활자, 지질, 제본, 삽화 등에 관한 것, 4) 도서관 장서로의 유용성 평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윤희운(1999, 147)도 그의 「장서관리론」에서 일반도서관의 선택기준으로 1) 저자의 권위, 2) 주제와 범위, 3) 물리적 특성, 4) 독자에 대한 가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서양의 여러 학자들의 기준을 참조하여 그 주요한 골자를 추려서 구분한 것이다. 위의 두 사람의 기준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빠대는 동일하게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이에 필자는 상기한 현대 문헌정보학자들이 제시한 장서평가기준 가운데 「군서표기」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평가와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서 1) 저자사항, 2) 내용사항, 3) 도서관 또는 독자의 유용성 등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 3.1.1 저자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을 보면 저자의 권위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경험이 많고, 다른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는 유명한 학자의 저술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군서표기」의 경우 수록된 책은 정조가 편

찬한 어정서(御定書)와 왕명을 받고 편찬된 명찬서(命撰書)이다. 따라서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저자는 정조와 당시 관찬 서적에 참여한 신료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조는 세종대왕과 함께 조선시대의 가장 학문적인 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영조의 축일권과(逐日勸課) 속에서 규칙적이며 조직적으로 수학하였으며, 즉위 후에도 그의 이와 같은 규칙적인 면학습성은 계속되었다. 그는 독서를 함에 일정한 계획을 세워두고 공부하였으며, 자신이 독서한 경사(經史)의 내용에 대해 신료들과 토론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독서 생활을 통하여 그는 이미 유년기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많은 책을 탐독하였으며, 수많은 서적을 편찬하였다(정형우 1995, 302-309). 한마디로 그는 당시 왕인 동시에 당대 최고의 학자 반열에 넣어도 전혀 손색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홍재전서」와 「군서표기」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당시 어정서와 명찬서의 편찬에 참여한 신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어정서와 명찬서는 정조 자신과 규장각신(奎章閣臣)과 초계문신(抄啓文臣)과 검서관(檢書官) 등이 그 편찬에 참여하였다. 당시 규장각신의 경우, 문벌 배경보다는 과거급제자 가운데 학문과 실력 면에서 가장 으뜸인 선비가 임용되었으며, 초계문신의 경우 37세 이하의 젊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재교육한 것으로서 홍석주(洪奭周), 정약용(丁若鏞) 등 대학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4검서관으로 알려진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이덕무(李德懋),

서이수(徐理修) 등 명찬서의 편찬에 참여한 대다수 신료들이 당대 최고의 학자반열에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측면에서 본 수록 서적의 질적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편찬에 왕이자 대학자인 정조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들 저자의 학문적인 우수성을 감안해 볼 때,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저자 평가의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 3.1.2 내용 사항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장서평가기준에서 내용 사항이란 각 주제, 주제의 범위, 표현방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독자에게의 기여도, 내용의 독창성, 논리성, 정보의 정확성 등 주로 저작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송영희 2005, 126 윤희윤 1999, 147).

「군서표기」의 경우, 목록의 성격상, 「누판고」나 「홍씨독서록」에 비해 여러 주제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그 수록된 서적의 내용적인 측면을 볼 때 상당히 우수성을 지닌 책이라 할 수 있다.

「군서표기」에서는, 주로 책에 수록된 내용이 우수하거나 표준적인 성격을 지닌 서적, 기존의 여러 설을 정리하거나 종합한 서적, 기존의 서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한 서적, 각 분야에 지침서적인 내용이 담긴 서적,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중시한 의리와 충절 사상이 담긴 서적, 왕실도서관에 관한 서적, 기존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고증 또는 교감한 서적, 목록관련 서적 등 여러 가지 서적이

수록되었다. 더욱이 이들 서적 가운데 상당수가 활자로 간행되어 전국에 배포된 점만 보아도 그 내용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서적의 편찬에 정조와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갖춘 신하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더욱이 그러하다. 이 「군서표기」에 수록된 정조의 어정서는 그가 왕인 동시에 당대의 대학자이며, 그의 평소의 학문적인 성향으로 볼 때 내용의 논리적인 측면이나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정조 자신이 전적으로 홀로 책을 편찬했다기보다는, 그 편찬 과정에서 당대의 최고 신료이자 학자들과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신하들이 감수(監修)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은 더욱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명찬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 서적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된 규장각신과 초계문신과 검서관들이 모여서 편찬한 서적들이므로 그 내용의 정확성과 우수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군서표기」의 범례에는 그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책은, 경서는 반드시 정자(程子)·주자(朱子)이후에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이며, 역사서는 반드시 사마천(司馬遷)과 반고(班固) 이후에 드러나지 않은 서법(書法)이다. 그 밖에 현행 제도와 사물에 미치는 이익과 은택, 언어 문자의 차이와 득실을 두루 섭렵하고 철저히 꿰뚫어서 이 책을 펼치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요컨대 독자들이 이를 체득하여

도로 삼고, 이를 축적하여 덕을 삼으며, 이를 실천하여 과업으로 삼고, 이를 섭렵하여 박학하기를 유도한다. 그 깨닫고 경계하여 분발하게 하는 효과는 오히려 거칠고 천한 공용(功用)에 속한다. 전(傳)에서 “천하를 다스리고 대자연을 조화시키면 성인께서 하실 일을 다 마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우리 성상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다. 아. 매우 드문 일이다(惟此書 所載之篇 經必是程朱以後不決之公案 史必是遷固以後 未章之書法 其他見行之制度 及物之利澤 言語文字之同異得失 周流貫穿 開卷瞭然 要使讀者 體之爲道 蘊之爲德 踐之爲業 涉之爲博 而其開悟警發之效 猶屬粗淺之功用 傳曰 經緯天地 橐籥造化 而聖人之能事畢矣 我聖上有之矣 於乎希矣).<sup>67)</sup>

이 「군서표기」에 수록된 경부의 서적은 정자와 주자 이후에 해결하지 못한 쟁점들을 담고 있으며, 사부의 책들은 사마천과 반고가 역사를 편찬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원칙들을 계승한 것이다. 그밖에 수록된 서적들 역시 현재의 제도 및 기존의 이론들을 철저하게 이해한 것으로서 그 수록된 서적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뛰어난 것들이다.

「누판고」와 「홍씨독서록」 등에는 유가(儒家)의 질서에 반대되는 노가(老家)와 불가(佛家)의 서적에 대해 유목을 설정하여 해당 서적들을 수록하였으나, 「군서표기」에는 불가의 서적으로 「범우고(梵宇攷)」 1종만을 수록하였다. 정조는 그의 친찬제(親撰題)에서 책을 짓게 된 동기가 승려들의 공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동시에 주자가 종산서원(鍾山書院)에 불교서적을 비치하고 본 뜻을 본받은 것<sup>68)</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자의 뜻을 본받은 것이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왕의 입장에서 종교로서 자리 잡은 불교에 대해 포용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에 대해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군서표기」에 수록된 도서는 현대문헌정보학적인 평가기준에서 보아도 그 질적 수준이 높은 서적들이라 할 수 있겠다.

### 3.1.3 도서관에서의 유용성 또는 독자의 유용성

도서관에서의 유용성이란 소장된 책이 이용자에게 얼마나 이용될 것이며, 독자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또한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가 등에 중점을 둔 문제이다(송영희 2005, 126).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은 정조의 재위기간 동안에 편찬된 어정서와 명찬서이다. 이들 서적은 당시 선비들이 당시의 통치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서 생활을 하는데 지침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높으며, 거기에 수록된 서적의 상당수가 활자로 간인되어 보급된 만큼, 그 이용 상의 효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현대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군서표기」 수록 도서의 내용을 통하여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제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 나온 문헌에 대해 서지적으로 정확하게 고증하고 감정할 수 있으므로, 정조

67) 「群書標記」(「홍재전서」, 권5, 서울 : 문화재관리국, 1978), 凡例

68) 위의 책, 御定4

조의 문화 전반을 연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입문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현영아 1974, 1).

이상의 세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자사항과 내용사항이다. 즉, 책의 저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책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가가 결국 좋은 자료를 평가하고 선택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군서표기」에서는 주로 내용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군서표기」가 조선후기 대학자이자 왕인 정조가 편찬한 서적과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 구성된 신료들에 의해 편찬한 서적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이 목록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은 현대의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훌륭한 책들이라 할 수 있다.

#### 4. 결 론

본 논문은 정조(正祖)가 재위기간 동안 편찬한 어정서(御定書)와 당시 학자들이 왕명을 받고 편찬한 명찬서(命撰書) 등을 대상으로 편찬한 해제목록인 「군서표기(群書標記)」에 수록된 도서의 질적 수준평가에 대해 고구(考究)한 것이다. 이 질적 평가유형은 「군서표기」의 범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군서표기」에 수록된 각 서적의 해제를 검토하여 그 서적에 대한 질적 평가사항을 추출하고 범주화하여, 이를 귀납적으로 유추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본 논문에서 고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155종의 서적 가운데 대강 100여종에서 서적의 질적 평가사유로 해

석할 만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필자는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질적 수준을 1) 내재적 가치, 2) 사상적 가치, 3) 서지적 가치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 다음에 이를 현대문헌정보학의 장서평가기준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군서표기」에서는 수록 도서에 대해 해제와 더불어 서문 또는 발문을 수록하여, 거기에서 책의 내용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각 주제 분야에서 내용이 뛰어난 서적을 위주로 하였으며, 너무 방대한 내용을 읽을 경우 독자가 많이 힘들 것을 대비하여 각 서적의 정수만을 추출한 선집(選集)을 편찬하였으며, 또한 선독(選讀)에만 치중할 경우, 학문의 깊이와 폭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 주제에 대해 기존의 설을 잘 정리하거나 집대성한 서적들을 수록함으로써 독서의 불균형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학문의 실용성을 강조하였는데, 이 같은 그의 생각은 그가 편찬한 어정서와 명찬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는 서적의 교감작업과 서적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 서적을 소장한 도서관에 대해 큰 관심을 두었는데, 이는 문헌정보학 또는 서지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책은 정조의 어정서와 명찬서이다. 정조 자신이 왕인 동시에 당대의 대학자라 할 수 있으며, 당시 명찬서의 편찬에 참여했던 규장각신(奎章閣臣), 초계문신(抄啓文臣), 검서관(檢書官)들 역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므로, 그 서적의 편찬에 참여한 저자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의 상당수가 출판되어 배포된 점 역시 그 서적의 질적 수준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군서표기」는 정조의 재위기간 동안 어떤 책이 출판되고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출판 정보를 제시하고, 이 목록에 수록된 서적에 대한 해제를 통하여 선비들이 가야할 학문 방향과 독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목록에 수록된 서적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정조의 입장에서 자신이 표방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내용을 이 「군서표기」에 수록된 서적을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하였지만, 당시 유행했던 문예사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체반정(文體反正) 즉, 올바른 문장을 통해서도(道)를 구하려는 정책은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서적의 질적 수준평가는 어떤 계층이나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질 수

도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조는 문체반정을 통한 유가정치의 확립을 표방한 당시 최고의 학자이자 군주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그의 입장은 목록에도 반영되었다. 비록 조선후기에 나온 선정도서목록인 「홍씨독서록(洪氏讀書錄)」이나 책판목록인 「누판고(鑊板考)」 등에 비해 수록 저작의 다양성이 떨어진 점은 아쉽지만, 당시의 선비들이 독서의 방향성을 잡고, 학문의 실용성을 확고하게 다지려는 정조의 노력이 그대로 담겼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군서표기」의 해제를 통해서 본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은, 당시 목록의 성격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의 다른 목록에 비해서 다소 한계를 지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 수준평가에 있어 현대 문헌정보학에서 제시하는 양서(良書)의 평가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순애. 1990. 『규장각의 도서편찬 간인 및 유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강혜선. 2000. 『정조의 시문집 편찬』. 서울: 문헌과 해석사.
- 『군서표기』. 1970. 서울: 학문각.
- 김문식. 1998. 「朱子大全」의 요약본 - 「朱文手圈」. 『문헌과 해석』, 5: 8-18.
- 김문식. 2000. 정조대 경학문헌의 특징. 『韓國學報』, 100: 58-83.
- 리재철. 1976.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 研究. 『성곡논총』, 7: 580-598.
- 리상용. 2004. 『연천 홍석주의 서지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 리상용. 2005. 홍씨독서록 수록 서적의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0: 247-281.
- 리상용. 2005. 누판고 수록 서적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31: 231-262.
- 서유구. 1968. 「鑊板考」. 홍명희 교정본. 서울: 보련각.

- 신승운. 2001. 「홍재전서」와 「군서표기」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2: 371-404.
- 신승운 역. 2000. 『군서표기』(홍재전서).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송영희 외. 2005.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안대회. 2000. 正祖의 文藝政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藏書閣』, 3: 87-111.
- 윤희윤. 1999. 『장서관리론』. 대구: 태일사.
- 임미선 외. 2000. 『정조대의 예술과 과학』. 서울: 문헌과 해석사.
- 정옥자. 2001.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서울: 효형출판.
- 정조. 1978. 『홍재전서』. 서울: 문화재관리국 장서각.
- 정재영. 1999. 「增修無冤錄大全」과 「增修無冤錄諺解」. 『문헌과 해석』. 겨울: 29-45.
- 정형우. 1995. 『조선조 서적문화연구』. 서울: 구미무역.
- 천혜봉. 1970. 『古書分類目錄法』.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현대. 1998. 朴闇의 詩文集 「(增訂)挹翠軒遺稿」. 『문헌과 해석』. 가을: 29-38.
- 현영아. 1974. 『「군서표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